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34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주후 2025.1.12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협력목사: 김홍현
전임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C G/B Am7 C/G F A7/E Dm7 G7 C G/B Am7 C/G Fmaj7 G7 C

주님의성 - 령 지금 이 곳 에 임 - 하 소 서 임하소 서

Am7 Em7 F G/F Em7 Am7 Dm7 G7 C Am7 F G7 C

할렐 루야 할 - 렐 루야 할 렐 - 루 - 야 할렐 루야

성서교독 시편 139편 다같이

인도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성도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인도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성도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인도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도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인도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성도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도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같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 주안에서 거듭난 생명,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기.....창세기 12장 1-5절.....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박소명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주신 은사로 사역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말씀묵상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응답하고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말씀 새한글성경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 2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 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 3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네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 4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람은 75세였다.
-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임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통독

새한글성경으로 <마태복음> 성경통독중입니다. 방식: 매주 월~토까지/ 하루에 1장 읽기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7장부터입니다 ^^

다음주 1.19 오후 커피토크 - 양성문 집사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양성문 집사님을 초청해 커피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되세요.

점심식사 섬김

오늘은 김정인 권사, 정지혜 집사님이 떡만두국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해주세요.

전정민 전임전도사

올해부터 전정민 전도사님을 전임전도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주세요.

1.26부터 3주간의 소그룹교육

1.26부터 3주간, 주일오후 시간이 소그룹교육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전 성도들이 각 그룹으로 나뉘어 교회/카페/기타장소 등으로 나뉘어 교육합니다

슬로베니아 선교 후원

길목교회는 지난 11월부터 슬로베니아 이준희 선교사팀의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1년간 작성하여 진행하는 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소식은 네이버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선교를 위해서 중보부탁드립니다.

2025년 길목교회의 쓸모~

올해도 우리 길목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편하고 신속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말씀,분별하며 나아갑시다 ^^

새로운 예배장소를 위한 중보

교육부서가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목교회를 위해 새롭게 필요한 예배장소를 허락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